

# 광주 중·소형마트 1500개 제살깎기 과당경쟁 심각

### “24시간 영업·할인戰 그만...상생 모색해야”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확산으로 골목 상권이 붕괴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자본의 중형마트들도 무한경쟁을 펼치고 있어 과도한 경쟁을 자제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1500여곳에 달하는 광주지역 중·소형마트들은 출혈·과당경쟁을 펼치면서 특정 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등 이전투구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27일 광주시 남구에서 중형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이모(45)씨가 지역 유통업계를 이끄는 한 중형마트와 그 대표가 유력 업체라는 점을 이용해 불공정 거래를 일삼고 있어 유통 구조를 흐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에 따르면 청과류 중개인을 겸하는 중형마트 대표 김모(46)씨가 공산품 유통까지 관여하며 사실상 프랜차이즈 형태로 지점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 이 과정에서 '갑과 을'로 비유되는 대표와 점주라는 의견상 일부 점주들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고 있고 경쟁 중·소형마트에게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씨는 김 대표가 비대해지는 마트의 위상을 앞세워, 지점 오픈과 확장 과정에서 대기업 보다 더한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형마트의 24시간 영업과 과다 경쟁을 부추기는 자가 할인행사도 논란이 되고 있다.

업주들은 편의점도 영업 시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일부 중형마트들이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24시간 영업을 강행, 제살깎아먹기식 난투전을 벌이고 있는 것은 모두의 손해라고 지적했다.

한 업주는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지만 이유를 떠나서 영업시간을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규 입점에 따른 할인·저가 경쟁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주월동의 경우 최근 3개월 사이에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100m 반경에 유력 중형마트 10여곳 들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 마트들은 개점 때부터 할인·이벤트 행사와 관련 단가 조정과 취급 품목을 싸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상당한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중형마트간 과도한 경쟁을 자제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형마트와 편의점으로 영세상공인들이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지역 중형마트들이라도 단합해서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장악에 맞서야 한다는 것이다.

김용재 중소기업살리기광주네트워크 위원장은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장악이 갈수록 교묘해진 상황에서 중형마트들간의 과당 경쟁은 지역 상권 살리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경쟁간에 사소한 시비를 접고, 대기업의 횡포를 막고 지역상권을 지켜내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역 기업이 운영하는 중형마트는 5월 현재 영암마트를 비롯해 120여곳이며 동네슈퍼와 비슷하거나 2~3배 정도 규모의 DC마트나 하나마트 등 중·소형마트는 1400여 곳에 달한다. 여기에 대기업 유통업체로부터 공산품 등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대신에 상호를 쓰는 이마트에 브리데이 상품공급점 같은 유형의 중형마트도 월 평균 10여개꼴로 문을 열고 있다.

▲ 코스피지수 1,979.97 (+6.52)	▲ 코스닥지수 577.56 (+3.50)	▼ 금리 (국고채 3년) 2.61% (-0.01)	▼ 원·달러 환율 1,122.40원 (-5.00)
-----------------------------	---------------------------	--------------------------------	--------------------------------

## 노사민정협, 지역경제 활성화 본격 추진

### 일자리창출 등 1억6000만원 예산 투입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27일 오후 일자리 창출과 고용환경개선 등에 1억6000만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2013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에 5년 연속 선정돼 올해 총 1억6000만원(정부 8000만원·광주시 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올 하반기 내 조례에 따라 노사민정 사무국을 설치할 예정이다. 노사민정협의회는 광주경영자총협회와 한국노총광주지역본부, 광주상

공회의소,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시, 고용노동부 등 지역 노사민정 대표기관들로 '구성됐다'.

이들 기관은 올해 말까지 'Job아래! 노사행복모델' 사업을 통해 ▲지역노사민정 협의체 운영 활성화 ▲노사파트너십 강화 및 생산적 노사문화 확산 ▲노사갈등 사전 예방을 통한 노사관계 안정화 ▲일자리창출과 노사상생을 위한 사회적 실천운동 등을 중점 추진한다.

노사민정협의회는 특히 관계기관

의 협력을 공고히 해 일자리 중심 지역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공시제 및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발굴 등에 나선다. 또 노사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노사관계 안정화 및 상생분위기 확산, 비정규직 문제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사업에 따라 지난 23일 광주경영자총협회가 주관한 제1회 '내 일 Job go! 희망 Job go! 맞춤형 취업 박람회'에는 반 나절만에 200여 명이 몰려 60명이 채용되는 등 효과를 거두고 있다.

## LH, 효천 2지구 국민임대 672세대 공급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 지역본부가 광주 남구 송하동·행암동 일원 효천2 보금자리 주택지구 A-2블록 단지에 2014년 11월 입주예정인 국민임대주택 672세대를 신규로 공급한다.

효천2지구는 영구임대주택 250세대와 국민임대주택 672세대(주택규모 36㎡ 516세대, 46㎡ 156세대) 등 총 922세대가 함께 건설되며 단지 안에 상가, 보육시설, 주민운동시설, 어

린이·유아놀이터, 경로당 등이 조성된다. 정광산, 대촌천, 근린공원 등이 가까워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으며 단지 안에 근린생활시설과 초·중학교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인근에 제2순환도로와 효덕IC, 용산IC, 국도 1호선, 지방도 817호선, 경전선 등이 인접해 시내·외로 진출입이 용이하며 인성고, 문성고, 동성고, 광주대 등 교육시설과 효천역, 노인건강타운, 빛고을CC 등 생활편의

시설이 갖춰져 있다.

임대조건은 36㎡가 보증금 1180만원·월임대료 14만7000원(최대 전환보증금 1980만원·월임대료 9만3670원), 46㎡가 보증금 2557만원·월임대료 22만1000원(최대 전환보증금 3857만원·월임대료 13만4330원)으로 시중 전세시세의 50~65% 수준이다. 문의(1600-1004).

## 새얼굴 “지하경제 양성화·강소기업 육성 우선”

### 조훈구 광주본부세관 세관장



“고객 눈높이에서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 해소하는 현장중심·고객 중심의 관세행정을 펼쳐도록 하겠습니다”

27일 오전 취임한 조훈구(51) 광주본부세관 세관장은 “지하경제 양성화·강소기업 육성·국민생활과 사회 안전 보호를 위한 관세국경관리 등 정부정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관세행정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조 세관장은 특히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

하고, 직원들에게 “화목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신뢰와 존중으로 끌어주고 믿어주는 아름다운 세관을 만들자”고 강조했다.

경기도 출신인 조 세관장은 의정부고등학교와 세무대학교,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1983년 관세청에 들어가 조사총괄과장, 인사관리담당관, 대구경북지역본부 세관장 등을 역임했다. /최재호기자 lion@

## 사무실 매매가 11% ‘뚝’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사무실 매매가격이 1년여 만에 11%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7일 밝혔다.

연구소가 분기마다 집계하는 오피스 매매가격지수(HNS-OPDI)는 올해 1분기 278.5로 지난해 4분기보다 3.6% 내렸다.

1999년 4분기 가격을 기준으로 100으로 삼은 이 지수는 2011년 4분기의 312.5를 고점으로 하락 전환, 1년3개월 만에 10.9%의 하락폭을 기록했다.

손정락 수석연구원은 “경제 성장을 둔화와 사무실 공급 과잉 우려로 임대시장의 약세가 지속하면서 투자 심리가 약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시장 맛, 백화점서 맛보세요”

지난 24일부터 롯데백화점 광주점 1층 특설매장에서 '전통시장 유명 맛집 특별초대전'이 열려 호응을 얻고 있다.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는 초대전에는 대인시장 맛집 13개 우수업소 상품이 전시·판매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 지역 소비자심리지수 5개월 연속 하락

5월 중 광주·전남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달과 같았지만, 5개월 연속 전국 평균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서 최근 광주·전남지역 도시가구 6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광주·전남 지역 소비자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는 100으로 전달과 같았다.

하지만 지난 1월 이후 5개월 연속 전국평균(104)을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심리지수가 100 이하면 경기를 비관하는 이들이 낙관하는 쪽보다 더 많고 100 이상이면 낙관하는 소비자들이 더 많다는 의미다.

6개월전의 생활형편과 비교한 3월 현재의 생활형편을 나타내는 현재생활형편CSI는 91로 전달과 같았다.

현재의 생활형편과 비교한 6개월 후의 예상을 나타내는 생활형편전망CSI는 96로 전달에 비해 2포인트 상승했다.

가계수입전망CSI는 전달보다 2포인트 하락했으며 소비지출전망CSI는 전달에 비해 4p 하락했다.

6개월 전 경기상황과 비교한 5월중 현재의 경기상황을 판단하는 현재경기판단CSI는 77로 5p 하락했고 CSI 조사시점부터 6개월 후의 경제상황을 예상하는 향후경기전망CSI는 91으로 전달에 비해 7p 상승했다

## 증권사 순익 반토막 2008년 이후 최저

지난해 주식시장 거래대금 감소로 매매수수료 수익이 급감한 탓에 증권사 순익이 2008년 이후 최저 수준까지 내려갔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업하는 62개 증권사의 2012회계연도 순이익은 모두 1조2408억원이었다. 이는 전년도(2조2126억원)보다 43.9% 줄어든 수치고 2008회계연도(2조201억원) 이후 가장 낮은 실적이다. 전체 증권사의 24.2%인 15개사가 당기순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순손실 규모는 총 2907억원에 달한다. 흑자를 낸 나머지 회사도 수익 규모는 전년보다 줄었다. 흑자를 나타낸 47개사의 총 순이익은 1조5316억원으로 전년보다 25.0% 감소했다.

작년 국내 주식시장의 주식 거래대금이 2006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증권사의 수탁수수료 수입이 전년보다 32.2% 줄었다.

자산관리수수료는 27.1%, 집합투자증권판매수수료는 18.3% 각각 감소했다. /연합뉴스

탈북미녀와 감동배리어티쇼!

함께하는

이것이 만나리 갑니다

CHANNEL A 매주 일요일 밤 11시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16	스카이라이프 13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해남 영암 진도 장흥 16	IPTV 18

CHANNEL A www.ichannelA.com 채널A